

建築士의 單獨住宅 設計傾向

—建築士誌의 設計作品을 中心으로—

Design Trends of Detached Houses by Architects

‘건축사’誌를 통하여 소개되는 주택작품들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때의 사회적 배경을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릇 주택이란 당대의 법적·제도적·기술적 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한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1. 서론

‘대한건축사협회’는 창립이후 지금까지 기관지인 ‘건축사’지를 통하여 거의 매호마다 회원들의 ‘대표적’인 주택작품들을 몇예씩 소개해오고 있다. 이 기관지를 통해서 소개되는 주택(단독주택)들은 그것이 어떤 선별과정을 거쳐 대표(게재)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이들 소개된 주택작품(이하 작품주택이라 한다)들을 통시적으로 들여다 봄으로써 건축사들의 주거건축에 대한 설계경향이나 태도 뿐만 아니라 건축주들의 설계에 대한 요구성향까지도 대체적으로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작품주택’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때의 사회적 배경을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릇 주택이란 당대의 법적·제도적·기술적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한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주거건축에 대한 설계태도의 일단을 그들의 작품주택의 평면을 통해서 파악하여 앞으로의 주택설계 일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의 선정과 성격

조사예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간구분과 일치시켜 기간별 50예씩 무작위로 추출하였다.¹⁾

[그림 1,2] 및 [그림 3]은 제2기

(1967~71)에서 제5기(1982~86)까지의 작품주택의 규모(연면적)분포의 시대적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제2기에서는 40평에서 100평사이에 주로 치우쳐 분포되다가 제3기(1972~76)에 와서는 1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60~80평이 오히려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제4기(1977~81)에 들어와서는 더욱 움츠러들어 40~60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²⁾

조사대상주택 185예의 연면적분포는 40평(132㎡)에서 100평(331㎡)까지가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소 33평(110㎡)에서 최대 168평(55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³⁾

또 185예중 1층 면적 표시가 안된 56예를 제외한 129예를 대상으로 1층 건평 분포를 보면 20~50평 84.5%로서 평균 38평(124.2㎡, 최소65㎡~최소270㎡)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185예)주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수는 5~6개가 62.2%로 가장 많으며, 7개가 16.8%, 4개, 8개가 각 8.1%를 차지하여, 평균 방수는 5.83개(3~9개분포)이다.

3. 평면의 특징

1. 각실의 위치층

전체 조사대상중 94.6%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층주택 가운데 현관이 1층에 위치하는 173예를 대상으로 보면 주침실인 안방은 78.6%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金鍾仁 + 嚴仁燮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Zong-in & Eom, In - Sup

1층에 거실을 두는 경우는 90.2%이며, 거실이 2개 있는 경우(52예)는 주거실(두개의 거실이 있는 경우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안방이 위치하는 층의 거실을 주거실로 봄)이 1층에 있고 부거실이 2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96.2%이다. 또 안방과 거실이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78%를 차지하고 있다[표 2참조].

‘가족실’을 두고 있는 경우(38예) 1층에 42.1%, 2층에 52.6%를 각각 두고 있다.

‘응접실’을 두고 있는 경우(21예) 71.4%가 1층에, ‘서재’를 두고 있는 경우(41예) 1층과 2층에 각각 31.7%와 53.6%로 이를 두며, ‘객실’의 경우(14예)85.7%가 1층에 두고 있다.

이상에서 안방을 위시하여 주거실, 응접실, 객실은 주로 1층에, 부거실, 가족실,

서재는 주로 2층에 위치하여 각각 외향, 내향의 정도를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한편 안방이 1층이외의 층에 위치하는 경우(37예) 같은 1층에는 부엌(및 식당)이 91.9%, 주거실이 75.7%, 가족실이 42.9%, 응접실이 57.1%로 분포되어 있으며, 방은 평균 2.19개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2 실규모의 경년변화

1) 거실

평면도상에 거실로 기재된 실만을 대상으로 보면, 거실이 2개 있는 경우(52예)와 거실을 두고 있지 않은 2예를 포함한 평균 거실수는 1.27개이다[표 3].

거실규모는 전반적으로 30m² 정도를 2기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전체주택규모에

대한 구성비는 3,4기에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5기에 와서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의 전체평균은 12.7%이고(최저5.1%~최고33.3%)67.0% (124/185예)가 7~15%에 집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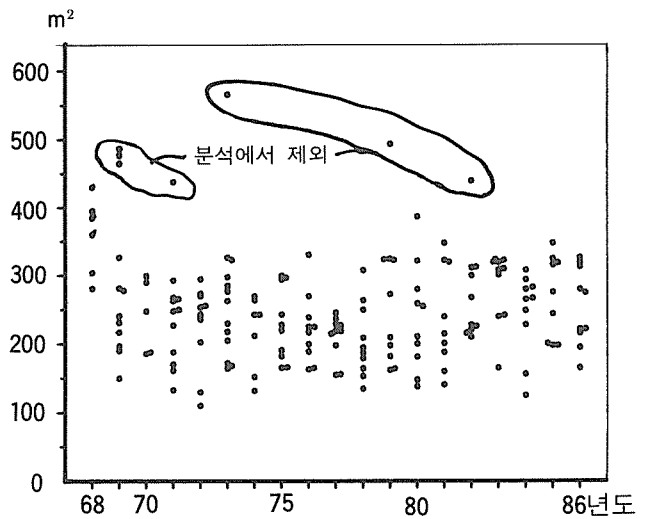
[그림 5, 6참조]

2)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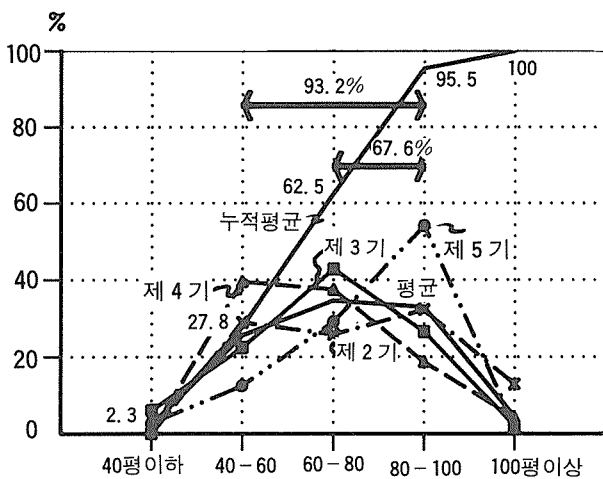
‘안방’명칭의 실외에도 ‘부부침실’ 명칭의 실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는 29.2%(54예)나 된다. 이러한 경향은 3,4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4기에와서는 34%나 되고 있다[표 4참조]. 이것을 안방만 두고 있는 경우와 여기에 부부침실을 추가로 두는 경우와를 연면적과의 관계면에서 비교하면 전자는 9.6%, 후자는 8.4%로서 전자가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연면적에 대한 비율분포는 최하4.0%~최고19.9%로서

년 도	조사대상(예)	비 고
1962~1966	0	제1기
1967~1971	35	제2기
1972~1976	50	제3기
1977~1981	50	제4기
1982~1986	50	제5기
계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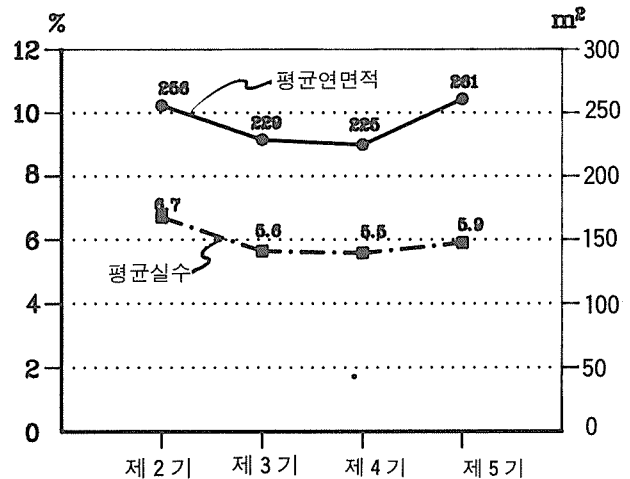
[표1] 조사대상의 기별분포



[그림 1] 조사대상의 기간별 규모분포



[그림 2] 기별 평균연면적 및 평균실수의 추이



[그림 3] 기별 작품주택의 규모추이

거실 안방	1 층	2 층	중 층	계
거실이 없는경우	2 100.00 1.48	0 0.00 0.00	0 0.00 0.00	2 100 1.16
1층	127 82.05 94.08	22 14.10 81.48	7 4.44 63.64	156 100 90.17
2층	2 40.00 1.48	3 60.00 11.11	0 0.00 0.00	5 100 3.47
중2층	4 40.00 2.96	2 20.00 7.41	4 40.00 36.36	10 100 5.20
계	135 78.03 100.00	27 15.61 100.00	11 6.36 100.00	173 100.00 100.00

[표2] 거실과 안방의 위치층 분포
단위 : Frequency
Row Pct
Col Pct

기 비고	거실없음	1개 보유	2개 보유	소 계
2기	0 0.00	26 74.29	9 25.71	35 100
3기	0 0.00	40 80.00	10 20.00	50 100
4기	1 2.00	34 68.00	15 30.00	50 100
5기	1 2.00	31 62.00	18 36.00	50 100
계	2 1.08	131 70.81	52 28.11	185 100.00

(표3) 거실보유의 기별 현황
단위 : Frequency
Row Pct

평균9.3%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중 7~11%사이가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기간별로는 거실의 변화에 비례하면서 3%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5참조].

안방면적은 2~4기까지 다소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5기에 들어 약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방외에 부부침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의 안방면적이 안방만 두는 경우보다 오히려 넓은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7,8참조].

3) 식당 및 부엌

부엌과 식당의 면적을 합한 면적평균은 전체연면적의 10.0%를 차지하며, 4.5%~25.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 형식은 식당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D.K형)이 59.5%(110/185)에, 간막이벽이 없는 일체형(DK형)이 40.5%로 되고 있는데, 이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리형(D.K형)

D.K형 평면에서 식당(D)부분의 면적비율은 4~6%범위에 54.5%(60/110)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평균은 5.1%로 되고 있다. 부엌(K)부분은 3~6%범위가

72.7%(80/110)에)를 차지하면서 전체평균은 5.3%이다[그림 9참조].

(2) 일체형(DK형)

부엌과 식당이 하나의 실로 된 형으로서, 그 면적비율은 7~10%사이가 대부분(40/75)을 차지하고 전체평균은 9.4%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0참조].

4. 평면유형의 분포

조사대상의 평면을 기본형(3x3 Grid)에 근거하여 유형화 하면 [표 6]과 같다. 이중 (3x3) 및 (3x2)형이 각각 26.5%,

비 고	안 방	안방+부부침실	소 계
2기	27 77.14	8 22.86	35 100.00
3기	36 72.00	14 28.00	50 100.00
4기	33 66.00	17 34.00	50 100.00
5기	35 70.00	15 30.00	50 100.00
계	131 70.81	54 29.19	185 100.00

[표4] <안방> 및 <안방+부부침실>의 구성

비 고	4~10%	11~15%	16~19%	계
안 방	77 58.78	52 39.69	2 1.53	131 m=9.6%
안 방+ 부부침실	41 75.93	12 22.22	1 1.85	54 m=8.4% *
계	118 63.78	64 34.59	3 1.62	185 m=9.3%

* 단, 부부침실면적은 안방면적 계산에서 제외

[표5] 안방면적의 연면적 구성비별로 분 <안방> 및 <안방+부부침실>의 대비

14.6%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여기에 약간의 요철(Cell)을 가한 형태인 C, D, E(C의 대칭)에서 J형까지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별특징면에서는 A 형은 3기, B 형은 4기, C 형은 5기, D 형은 2기, E 형은 5기 등에 집중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형태인 A, B 형은 후기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대신 여기에 요철을 가한 형식(ㄱ, ㄴ자형)이 후기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표 6].

1. 실위치의 선호경향

평면상의 각실의 위치번호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인접도로, 대문, 주변환경과 방위 등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상황을 일단 동일조건으로 가정하고 다만 평면내의 주요실인 현관, 거실, 안방, 주방의 선호위치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방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위쪽을 북쪽으로 가정하였다).

현관의 위치는 대개가 남쪽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1]. 거실도 현관과 마찬가지로 남쪽 가운데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여기서 현관과 거실은 서로 인접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방은 중앙에 위치한 거실에 상대적으로 밀리면서도 프라이버시와 일조, 통풍, 전망이 양호한 동남쪽 또는 서남쪽코너를 선호하고 있다.

2. 각실관계

1) 거실·현관관계

거실과 현관간의 관계를 보면,

(1) 현관이 거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

(2) 현관이 거실과 분리되기는 했지만 바로 거실옆에 위치하고 있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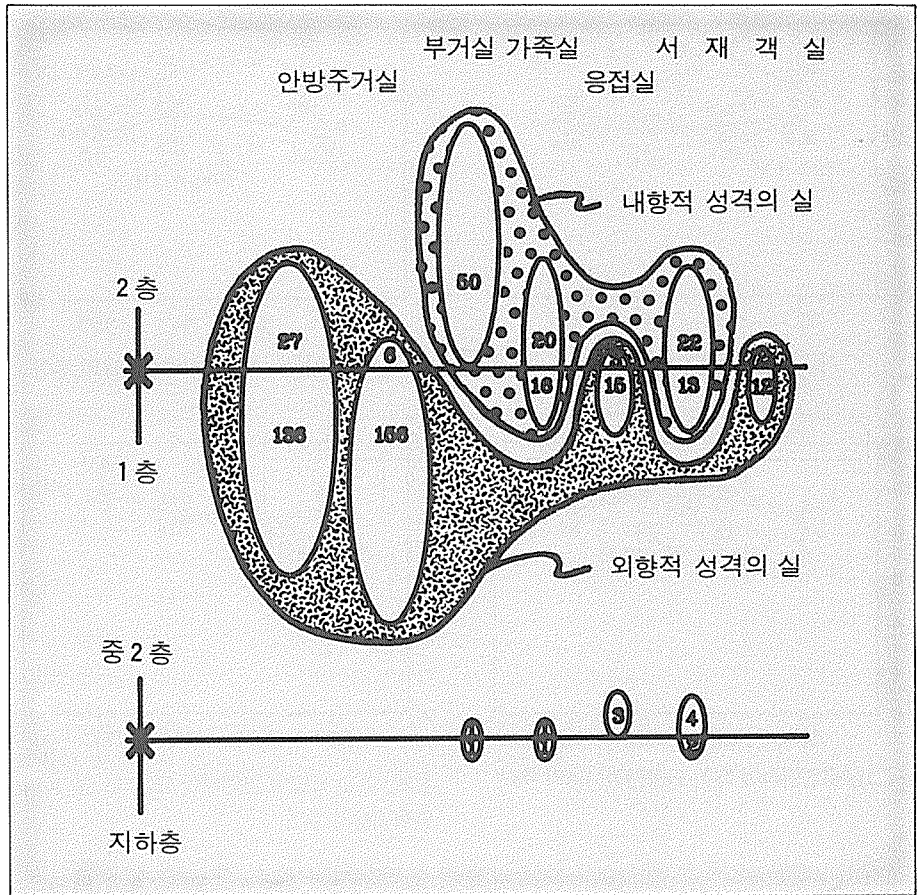
(3) 현관과 거실 사이에 복도나 실을 두고있는 형,

(4) 현관과 거실이 서로 다른 층에 소재하는 형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2)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68%를 차지하고(125/183예), 그외 (1), (3), (4)형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형중에서 (1)형의 경우는 대체로 통과 동선기능이 중시되는 형태이다[그림 12참조].

2) 거실·안방관계

거실과 안방의 위치관계는,



[그림 4] 각실의 위치층

(1) 거실과 안방의 인접하여 있는 형,
(2) 거실과 안방이 복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

(3) 거실과 안방이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1)형이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형, (3)형이 각각 비슷한 22%씩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형이 3,47기에, (2)형이 5기에, (3)형은 2기에 각각 집중하고 있다[표 7참조].

3) 거실·부엌관계

거실과 부엌(및 식당)의 위치관계는,

(1) 거실과 부엌이 인접하여 있는 형,

(2) 거실과 부엌 및 식당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형,

(3) 거실과 부엌 및 식당이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1)형이 가장 높은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별로도 (1)형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곧, 거실과 부엌(및 식당)이 인접하여

선호되고 있음을 말한다[표 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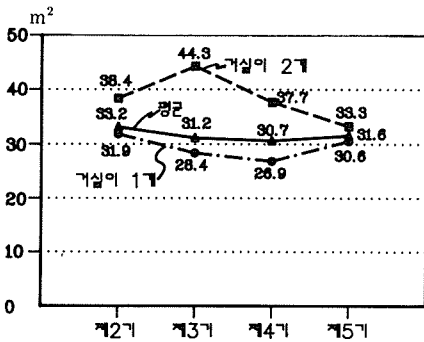
4) 거실·자녀실관계

거실과 자녀실간의 관계는 (1)거실과 자녀실이 같은층에 위치하는 형, (2)거실과 자녀실이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하는 형, (3)그리고 자녀실이 거실과 같은 층에도 위치하고 동시에 다른층에도 위치하는 혼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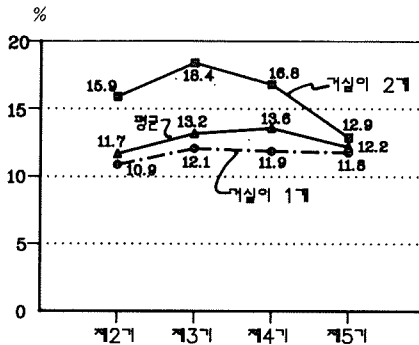
여기에서 거실과 다른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50.2%, 거실과 같은층에 함께 위치하는 형이 41.6%를 보이고 있다[표 9참조].

5.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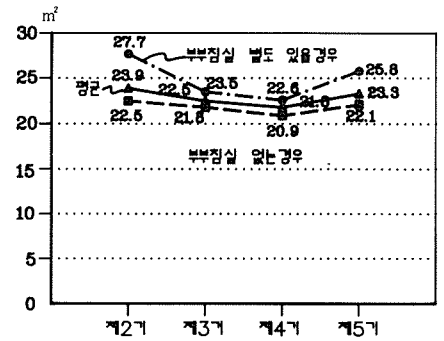
위에서 본 작품주택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그것이 대규모 지향적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타 건축관계 잡지를 통해서 소개된 '작품주택'들과의 비교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건축문화(85/101)」⁴⁾지에서는 평균 26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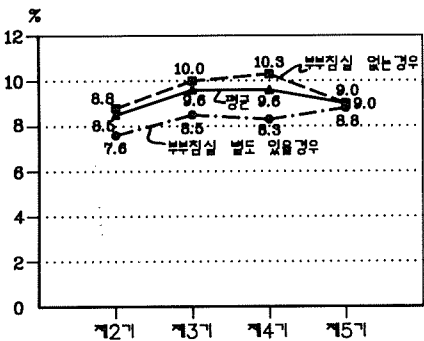
[그림 5] 거실면적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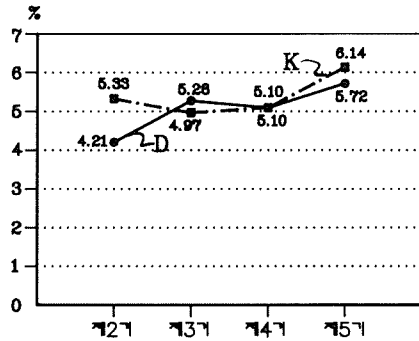
[그림 6] 연면적에 대한 거실면적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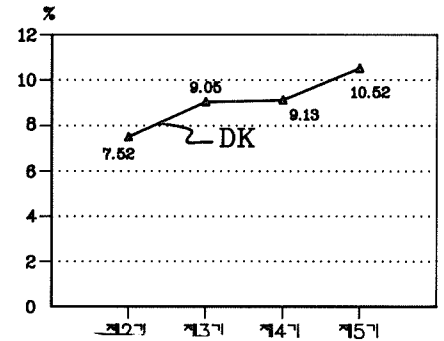
[그림 7] 안방면적의 추이



[그림 8] 연면적에 대한 안방면적비율의 추이



[그림 9] D, K형의 연면적에 대한 D 및 K의 면적비율의 추이



[그림 10] DK형의 연면적에 대한 DK면적비율의 추이

○ : 5% ● : 20% ● : 40%

유형	실	현 관	거 실	안 방	부엌 · 식당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그림 11] 각실의 위치선호

「건축사회원설계작품집(65/73)」⁹⁾에서는 257m², 「아름다운 집(37/60)」⁶⁾이 397m²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60~100평사이의 주택이 차지하는 분포면에서 각각 75%, 80%, 83%, 73%로써 전반적으로 73%~83%범위내에 수용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실, 주방, 식당, 응접실, 객실, 서재, 주침실(또는 안방), 부침실1 또는 아이들방(공부방 포함), 부침실2(노인방), 기타(고용인방 등)를 합산한 방수는 평균 5.83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건축문화」의 5.90개, 「아름다운 집」의 4.85개, 「건축사회원설계작품집」의 5.51개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품주택’들의 형태나 내용은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므로써 한시대의 주도적인 주거건축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주도적’이라 함은 일반적인 문화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듯이 주거문화⁷⁾도 그 생성의 측면에서 고급의 주도적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볼 때의

구분	기 간	기간				소 계
		'68-71	'72-76	'77-81	'82-86	
A		9	19	12	9	49
		18.37	38.78	24.49	18.37	26.5
B		6	8	10	3	27
		22.22	29.63	37.04	11.11	14.6
C		0	3	4	5	12
		0.00	25.00	33.33	41.67	6.5
D		4	1	3	3	11
		36.36	9.09	27.27	27.27	5.9
E		2	0	3	5	10
		20.00	0.00	30.00	50.00	5.4
F		3	3	3	0	9
		33.33	33.33	33.33	0.00	4.9
G		0	3	2	3	8
		0.00	37.50	25.00	37.50	4.3
H		0	1	1	2	4
		0.00	25.00	25.00	50.00	
I		1	0	2	1	4
		25.00	0.00	50.00	25.00	
J		0	1	0	0	1
		0.00	100.00	0.00	0.00	
기타형		0	0	0	2	2
		0.00	0.00	0.00	100.00	
합 계		35	50	50	50	185

(표6) 기별 평면의 유형분포

(표8) 거실·부엌(식당)관계

유형	기	기간				소 계
		2기	3기	4기	5기	
(1)		7	16	28	12	63
		20.00	32.00	56.00	24.00	
(2)		14	23	12	29	78
		40.00	46.00	24.00	58.00	
(3)		8	5	6	6	25
		22.86	10.00	12.00	12.00	
(3)		6	6	4	3	19
		17.14	12.00	8.00	6.00	
계		35	50	50	50	185

(표7) 거실·안방관계

단위 : Frequency
Row Pct

유형 \ 기	2기	3기	4기	5기	계	
(1)		9	25	21	19	74
		25.71	50.00	42.00	38.00	
(2)		7	9	11	5	32
		20.00	18.00	22.00	10.00	
(3)		6	8	6	19	50
		17.14	16.00	12.00	38.00	
(3)		13	8	12	7	50
		37.14	16.00	24.00	14.00	
계	35	50	50	50	185	

(표9) 거실·자녀실관계

단위 : Frequency
Row Pct

유형 \ 기	2기	3기	4기	5기	소 계	
(1)		4		3	4	15
		11.43	8.0	6.00	8.00	
(2)		17	3	19	27	93
		48.57	60.0	38.00	54.00	
(3)		14	1	28	29	77
		40.00	32.0	56.00	38.00	
계	35	5	50	185		

얘기이다. 곧, 전자의 고급주거문화가 건축가의 창작적 열의와 전문성이 가급적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경우의 소산이라면, 후자의 대중주거 문화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크게 덜 반영되거나 전혀 외면되어 버리거나 또는 반영된다하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참여(허가수속에 필요한)의 결과 조성되는 집장사들에 의한 주택의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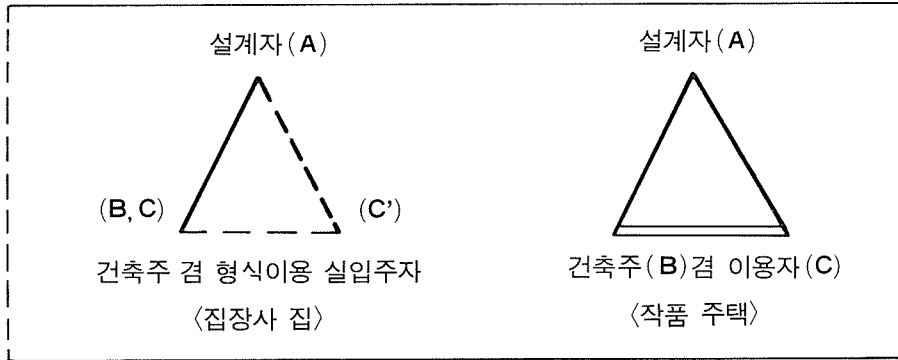
그러나 이용자의 설계에의 참여는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별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집장사집 같은 경우 [그림 13]에서 C 요소가 제거될 소지가 큰데다 이런 형식으로 보급되는 주택은 실제로 전체주택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작품주택'들은 1차적으로는 설계자(등록된 건축사)의 입장에서 (정도의

유형	거실의 기능	예수	연면적(평)				연면적에대한거실비율(%)				
			-50	-100	-150	150-	-5	-10	-15	-20	20-
(1)		0	18	●	●	●	●	●	●	●	
		1									
		17									
(2)		42	125	●	●	●	●	●	●	●	
		74									
		9									
(3)		9	24	●	●	●	●	●	●	●	
		13									
		2									
(4)		14	16	●	●	●	●	●	●	●	
		1									
		1									

○ 거실 독립형 ○ 거실+복도형 ⊖ 거실통로형 ● : 5% ● : 20% ● : 40%

[그림 12] 거실·현관관계



[그림 13]

차이는 있겠으나)작품성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 계제·소개되는 것이라 이해 할 때 이들이 어떤 주도적 주거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대규모 지향에 2층지향으로 대표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반드시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과시풍조 내지 소비지향적인 사회풍조의 일부분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선도하므로해서 국민의 건설한 주문화의 향도에 오히려 장애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수준을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하 앞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방, 주거실, 응접실, 객실 등의 외향적 성격은 실은 1층에, 부거실, 가족실, 서재 등의 내향적 성격의 실은 주로 2층에 위치한다.

2) 거실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30㎡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12%정도를 보이고 있다. 안방의 규모는 22㎡정도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9%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때 부부침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의 안방면적이 오히려 안방만 두고 있는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부엌 및 식당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10%정도로 되고 있다.

3) 평면의 유형은 단순형태인 (3×3 Grid)형과 (3×3 Grid)형이 가장 많으며, 이들 평면의 유형별 실위치의 선호경향은 거실과 현관은 대체로 남쪽에 둬으로써 서로 인접하게 되고, 안방은 중앙에 위치하는 거실에 밀리어 동남쪽 또는 서남쪽을

선호한다.

4) 거실과 현관의 위치관계는 간막이로 분리되기는 했지만 바로 이웃하는 형이 가장 많다.

5) 거실과 안방의 위치관계는 서로 인접해 있는 형이 가장 많다.

6) 거실과 부엌의 위치관계는 같은층에 위치하면서 바로 인접하여 있는 형이 대부분이다.

7) 거실과 자녀실의 위치관계는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하는 형과 같은 층에 위치하기도 하고 다른층에 위치하기도 하는 혼합형이 대부분을 이룬다.

註)

1) 다만 경제개발계획 제1기에는 주택작품 소개가 평면을 결들이는 형식이 아니었으며, 제2기에 들어서도 초년도에는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추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표 1참조].

2) 그러다가 경제적 안정기에 든 제5기(1982~86)에 와서는 다시 80~100평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40평이하 규모는 제3기에 집중하며, 40~60평은 4기에, 60~80평은 3,4기에, 80~100평은 5기에 집중하고, 100평이상은 2기에 집중하고 있다. 100평이상의 규모가 3기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오일쇼크에 직접적인 원인외에도 당시 호화주택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사회적 비판의 여론이 비등했던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여기서 연면적이 430㎡ 이상인 7예, 기타 면적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2예를 제외한 176예의 평균 연면적은 73평(242㎡)으로 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185예중 2층주택이 거의 대부분인 94.6%를 차지하고 그의 1층(8예)과 3층(2예)이 극소수 포함되고 있다. 또 skip floor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2층주택에서 31예, 1층주택에서 2예, 3층주택에서 1예씩 발견된다.

4) 조사대상 101예중 면적이 명시되어 있는 85예 분석을 의미한다. 이하 5), 6)도 같다.

7) 본고에서는 주거건축의 설계·공급프로세스와의 관련면에 한정해서 이해한다.

8) 이런 형식으로 세워지는 주거건축은 대도시의 경우 90%이상이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